

芝峯評論研究

—特회 芝峯類說 所載 文章部를 中心으로 —

金 周 漢

<內 容>

- | | |
|-----------------|------------|
| I. 序 | V. 歌詞評 |
| II. 芝峯類說과 '文章部' | VI. 文風의 痘弊 |
| III. 詩文論 | VII. 結 |
| IV. 詩文評 | |

I. 序

本稿는 芝峯 李誥光(明宗18年；1563~仁祖 6年；1628)의 所作인 芝峯類說 속의 '文章部'를 中心으로 하여 그의 評論에 관한 一端을 살피려고 함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는 芝峯의 傳記에 對해서는 省略하고 芝峯類說의 體裁와 및 이 속에 들어 있는 '文章部'에 관한 目次를 例示하고 이어 芝峯의 詩文論과 詩文評, 그리고 우리 國字로 기록된 歌詞에 對한 評과 當時 文風의 痘弊를 끝으로 마무리 할까 한다.

II. 芝峯類說 및 '文章部'

芝峯類說에 對해서는 먼저 그의 序文을 드는 것이 순서이겠다. 우리는 東方禮義의 나라로서 이름이 나 있으나 文獻이 不足함을 애석하게 여기고, 또 歷代의 小說諸書가 多闇과 故實의 증빙자료로 가치가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小說書로 前朝·我朝의 책이 불과 十數家에 그쳐, 후세에 傳한 만한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으나 자기의 劣識으로는 速作이 망발이지만 한 두 가지 略記하여 備忘함이 뜻이라 했고 神怪한 일에 대해서는 일체 실지 않았으나 古人詩文에는 問或 意見을 參酌하여 僮越하지만 자기 의견이 감히 옳아서가 아

니고 오직 具眼者들이 가려 읽으라고 말한다.

끝으로 芝峯은 年代를 '萬曆 四十二年 七月 中瀨'으로 밝혔으니 이는 光海君 六年(3947. 1614) 芝峯 五十二歲 時의 脫稿이다.¹⁾

"我東方，以禮義聞於中國，博雅之士殆接迹焉，而傳記多闕，文獻鮮徵，豈不惜哉，夫歷代之有小說諸書，所以資多聞，證故實，亦不可少也，如前朝補闕集樸翁稗說，我朝筆苑雜記備齋叢話等編，不過十數家而止，其間事蹟之可傳於世者，率皆泯泯焉，餘以款啓劣識，何敢妄擬於述作之林，略記一二，以備遺忘，寃餘志也，若事涉辭怪者，一切不錄，而於古人詩文，間或參以意見，則固知僭越之甚，然非敢以己意爲是，具眼者擇焉。萬曆四十二年七月中瀨 李辟光書"

또 芝峯은 凡例에서 類說의 얘기 토막이 總 3435條로 되었는데 分類하다 보니 많은舛駁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각 얘기마다 그 出處를 밝혔으며 여기 나오는 書籍만도 六經에서 小說諸書에 이르기까지 348家의 것이고 人名만도 2265人에 이르고 있음을 밝혀 大著임을 과시한다. 凡例는

- “一、爲說共三千四百三十五條，初出於聽記，隨得輒書，而篇帙既夥，始爲分類，故或未免舛駁肅。
- 一、所記，出自古書及聞見者，必書其出處，而頗以妄意斷之，其不言出處者，乃出妄意者也。
- 一、所引書籍，六經以下至近世小說諸集，凡三百四十八家，所錄人姓名，自上古迄本朝，得二千二百六十五人，具載別卷，其或但稱姓某云者，不欲斥名，亦有所諱焉耳。”

以上으로 類說의 대장을 말했고, 다음은 이 類說의 特徵을 李 崇寧 博士의 見解를 빌어 紹介할까 한다.

"芝峯類說은 一種의 百科辭典式 體裁로 엮어진 것인데, 芝峯類說이 지니고 있는 價値는 우선 實學時代에의 先驅者로서 學風形成을 刺激한 것이라고 보며, 다음으로는 西洋文明의 紹介者로서 思想界的 어느모의 更新을 피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러한 體裁의 作業이 後世에 내려가서 李瀨의 「星湖僊說」, 洪萬宗의 「旬五志」 李義風의 「古今釋林」, 鄭東愈의 「畫水編」, 柳僖의 「物名考」 등으로 發展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보면 芝峯類說은 十七世紀初에 이룩된 時代의 作品이라고 하겠다."²⁾

라 하고 이어서 特記할 만한 것으로 첫째 西洋文明導入으로 歐羅巴의 地圖,

1) 檀慶學會 韓國史年表에 依함.

2) 李崇寧: 芝峯類說 解題

永吉利國의 紹介, 佛浪機國, 天主實義 等과 둘째로 言語學의 開拓으로 比較言語學的 試圖, 語源의 解釋, 語彙의 藏集, 言語原理의 指摘, 한글 字形의 梵字模倣說 等을 들고 있다. 李博士는 여기서 梵字模倣說이 “獨創的인 主張”이라고 하나 筆者의 見聞으로는 별써 2世紀前 成倪이 樸齋叢話에서 지적하고 있는 걸로 보다.³⁾ 그리고 西浦같은 분은 芝峯을 못마땅하게 評한 例가 많으나⁴⁾ 다음 項目에서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類說所載「文章部」의 內容體裁를 紹介할까 한다. 類說이 모두 二十卷으로 된 것인데 이 文章部가 모두 七卷을 차지하여 十中 三을 더 차지하고 있어 얼마나 芝峯이 관심을 가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卷八, 文章部 一(173)

文(33), 文體(15), 文評(28), 古文(40), 辭賦(24), 東文(10), 文藝(22)

卷九, 文章部 二(202)

詩(31), 詩法(34), 詩評(137)

卷十, 文章部 三(176)

御製詩(27), 古樂府(22), 古詩(29), 唐詩(98)

卷十一, 文章部 四(219)

唐詩(219)

卷十二, 文章部 五(186)

唐詩(66), 五代詩(4), 宋詩(78), 元詩(8), 明詩(30)

卷十三, 文章部 六(187)

東詩(187)

卷十四, 文章部 七(149)

旁流詩(13), 閨秀詩(20), 妓妾(9), 歌詞(17), 麗情(10), 哀辭(12), 唱和(10), 對句(17), 詩禍(7), 詩讖(10), 詩藝(24)

위에 引用한 文章部 內容은 우선 앞이 文, 뒤가 詩로 되었음을 알겠고 文部에서는 文評條를 前後해서 前論後評이라 할 수 있겠고 詩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文과 詩에서 論·評의 比重을 따져 보면 文論 48, 文評 125, 詩論 65, 詩評 1054로 되었음을 알겠으며, 이것을 아우르면 文이 173, 詩가 1119로서 詩에 관한 것이 越等이고 類說全體로 따지드라도 3435條에서 1292條는 삼분의 일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매 저 序文의 “於古人詩文間或參以臆見, 則固知僭越之甚”이라고 한 芝峯의 태도는 겸손이라 하여 무리가 아닐것

3) 大洋書籍刊 南晚星譯注.

4) 拙稿：西浦評論研究.

이다. 이 점을 들어 西浦는 “類說全體에서 詩文에 對한 言及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불만한게 없다”는 말은 서로의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하겠으니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III. 詩 文 論

여기 論이니 評이니 하는 것을 굳이 目次에서 구분하였으나 明確하게 잘라서 말하기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芝峯自身이 ‘舛駁’을 면하지 못했다는 告白에서도 증거가 되겠지만 事實 이 文章部에서는 一般論과 評의 한계를 뚜렷하게 구분지운 곳도 보이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筆者 나름으로 展開해 볼까 한다.

• 芝峯은 먼저 文章보다가는 道學을 더욱 貴한 것으로 봇박고 魏文帝가 典論 論文條에서 선언한 말을 반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魏文帝가 말하기를 사람의 나이는 때가 되면 끝이 나며, 부귀영화와 一生 行樂은 종말이 있는 것이라서 恒常스런 期限이 있기에, 文章이 無窮하도록 生命을 가지는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이는 한갓 文章이 貴하다는 것만 알았지, 道學이 文章보다 더욱 貴重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 소치라 하겠다.”

“魏文帝曰, 年壽有時而盡, 榮樂止於一身, 二者必至之常期, 未若文章之無窮, 是徒知文章之可貴, 而不知道學之尤貴者也. <8—1—文—1>⁵⁾

다음으로 文章은 神을 為主로 생각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古人の <氣爲主>의 說에 共鳴하고 柳子厚의 <神志爲主>를 批判한다. 곧

“古인이 말하기를 文章은 氣를 主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說이 옳은 말이다. 柳子厚에게 와서는 文은 神志를 主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神이란 變化不測함을 이름이요, 志란 氣의 統帥者이니 이미 志라고 말했으면 氣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 포함되었으며, 또한 神이라고 말한 바에야 志를 言及할 必要가 없는 것이니, 때문에 나는 斷言하기를 文章은 神을 主로 삼는다 라고”

古人謂文章以氣爲主, 其說尙矣, 至柳子厚乃曰, 為文以神志爲主, 餘以爲神者變化不測之謂, 志者氣之帥也, 既曰志, 則氣不足言也, 既曰神, 則志不足言也, 故餘斷之曰, 文章以神爲主”<8—1—文—15>

여기서 芝峯은 <以神爲主>의 文論을 提唱하는데 이는 高麗時代의 <意

5) 이는 芝峯類說 卷八, 文章部一, 文條의 첫째 얘기 토막이란 署號이며 이하 같음

氣爲主>의 主張과 麗末鮮初에서 부터 시작하여 退栗에 이르러 極에 達했던 <主理>의 主張에 다시 表現을 달리하는 見解라 하겠다. 이어 芝峯은 殷璠의 文論을 援用하여 자기의 主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殷璠이 말하기를 文에는 神에서 오는 것이 있고, 氣에서 오는 것이 있고, 情에서 오는 것이 있으며, 雅體가 있고, 野體가 있고, 鄙體가 있으며, 俗體가 있으니, 能히 諸體를 두루 살피고 出處를 밝히고야 巴야흐로 그 優劣을 가릴 수 있다고 했다. 내 이르기를 詩에도 또한 그렇다…….”

“殷璠曰，文有神來氣來情來，有雅體野體鄙體俗體，能審察諸體，委詳所來，方可知其優劣，餘謂於詩亦然……”<8—1—文—11>

또 芝峯은 文體의 變遷史를 通해 尚古的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곧

“明人們은 ‘西京의 文이 高·惠·文·景帝의 時代를 初漢文이라 하고, 武帝時代에 있었던 것을 盛漢文이라 하며, 宣·元帝 時代 이후의 것을 中漢文이라고 불렸음을 볼 때, 唐詩를, 始·盛·中·晚唐으로 時代區分한 것과 같다 하겠다. 무릇 文章이 단一世와 더불어 升降하는 것이니 二三百年間을 넘어서지 못해서 體式이 쉬 변하고 氣格이 겹차 微微해져서, 마치 階級이 아래로 내려옴 같고 江河의 흐름 같아서 가히 되돌릴 수가 없으니, 學者가 漢唐에 있어서 詩와 文을 관찰하여 世代를 尚論한다면 辯說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明人於西京之文，在高惠文景之世者，曰初漢文，在武帝之世，曰盛漢文，在宣元以後，曰中漢文，猶唐詩之分始盛中晚唐也，夫文章與世升降，不過二三百年之間，而體式易變，氣格漸微，如階級之下，如江河之流，不可復返，學者於漢唐，觀其詩與文，而尚論其世，則不待辯說而自知矣”<8—1—文—6>

위에서 芝峯은 <體式>이 <易變>하고, <氣格>이 <漸微>해짐은 마치 강물이 흘러 다시 높은 끓으로 갈 수 없음에 비유하여, 항상 古文에로의 恢復을 希願하고 있음을 알겠으며, 또한 文에는 力量의 高下에 따라서 文의 優劣이 가름된다고 한다.

“朱子가 말하기를 韓愈의 文章 力量이 漢代의 文만 못하고 漢代의 文은 先秦·戰國時代의 그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나는 이 말이 믿을 만하다고 본다. 古今의 人材가 서로 미치지 못함은 모두 力量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니 어찌 文에서만 그렇겠는가?”

“朱子言韓文力量，不如漢文，漢文力量，不如先秦戰國，餘謂斯言信矣，古今人材所以不相及者，皆由力量不逮故也，豈惟文哉”<8—1—文—14>

또 創作과 模倣의 難易度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다.

“古人의 文章 또한 模倣이 많으니 예하면 楊雄의 反離騷는 屈原의 離騷에서 나왔고 曹植의 七命과 強協의 七啓는 枚乘의 七發에서 나왔고, 【東方朔의 答客難과 楊雄의 解嘲는 宋玉의 答楚王問에서, 韓退之의 送窮文은 楊雄의 逐貧賦에서 나왔으니, 이에서 볼 때 創始하기는 어렵고 模倣은 좀 쉽다고 하겠다.”

“古人文章·亦多模倣……是知創始難，而模倣差易耳”<8-1-文-12>

에서는 文章의 創始가 얼마나 어렵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芝峯은 또作文하는 法에 對해서도 仔詳하게 들려 주고 있음을 다음의 引用에서 알 수 있다. 곧 歐陽公이 詩文을 지음에 分量이 많을 必要 없다고 한 말에 반대하여 文이란 <隨意而成，意盡而止>할 일이지 굳이 분량에 구애될게 없다고 한다.

“歐陽公言，凡爲詩文不必多，古人無許多也，餘謂詩文，多則多少則少，隨意而成，意盡而止，如韓愈之原道，杜甫之北征，不厭其多，韓愈之獲鱗，孟浩然之絕句不嫌其少矣”<8-1-文-16>

또 曾鞏의 <自然成文，不假雕飾>의 說을 引用하고，自己로서도 <自然成文，不假人巧>하여 힘들이지 않고 마치 누에가 실을 뽑듯 출출 이어져 나올 수 있다고 하고 為文者는 이 말을 몰라서는 않되겠다고 한다.

“鞏曾——曾鞏의 칠웃：筆者——曰，如風行水，如虫食木，自然成文，不假雕飾，又曰虫之食木無鋒可見，蠶之作繭無罅可尋，餘謂文貴自然，不假人巧，至此則爲無所用其力矣，凡爲文詞者，不可不知此言。”<8-1-文-18>

또 作文하는 과정에서 文의 氣骨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雕刻이나 敷演은 절대 禁物이라 하고 姜夔의 <雕刻傷氣，敷演傷骨>의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姜夔曰，雕刻傷氣，敷演傷骨，若鄙而不精，不雕刻雖過也，拙而無委曲，不敷演之過也，余謂不雕琢不敷演，則不足謂文也，然雕刻而不傷氣，敷演而不傷骨，難矣，是故文之所貴，氣骨而已”<8-1-文-19>

또 文章을 성취함에는 <成於心>해야지 <成於手>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梁 裴子野의 所論을 引用하고 있음도 注目된다.

“梁裴子野，爲文操筆立成，不尚靡麗，或問其能速者，答曰人皆成於手，我獨成於心，余謂夫文猶造化也，成於心者必工，而成於手者不必工，固也，世之能成於心者，鮮矣。”

其不工也宜哉”<8—1—文—24>

위에서는 芝峯이 文章은 天地造化의 妙와 같다고 보고 있어 造化의 工이 훈적 없이 발휘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 沈約의 <三易>와 姜夔의 <寡言, 易言>의例를 <作文之法>으로 主張하고 있는데 反해 今人們은 風流한 것으로써 <工>하다고 하니 웬 말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한다.

“沈約曰， 文章當從三易， 謂易見事， 易識字， 易讀誦， 又姜夔曰， 人所易言， 我寡言之， 人所難言， 我易言之， 此則作文之法， 今人乃欲以艱澁爲工， 何也”<8—1—文—23>

이상으로 文과 道學과의 관계, 氣骨問題, 作文法 等에 對해 살폈기, 아래에서는 文體에 對한 見解를 살필까 한다.

첫째, 文體의 가장 오랜 것을 고증하여 가장 오랜 것이 簡銘인데 그 中에서도 銘이 더욱 오래다고 하고 그例로서 <黃帝金几之銘>을 들고 있다.

“文有各體，而惟簡銘最久，按舜作簡禹聽歲堯舜銘盤孟，此其始也，然漢藝文志曰，黃帝有金凡之銘，古逸書亦載黃帝巾機銘，蓋銘尤古矣”<8—1—文體—34>

또 詩文의 各體를 羅列하고 사람이 各體에 能工하기는 어렵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는 芝峯이 類說의 編纂態度에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文之屬，有簡・銘・頌・贊・詔，誥・制・勅・冊・赦・文・表・箋・啓，狀・書疏・劄・封事・議・奏・咨・揚・帖・檄・露布・序・記・志・傳・跋・引・策論・義・祭文，祝詞・哀辭，誄・青詞・致語・上樸文・賦・辭焉，詩之屬，有三言・四言・五言・六言・七言・聯句・絕句・律詩・排律・古詩・長短句・歌詞・樂府焉。古今工爲文詞者衆矣、而能工各體者，亦尠矣按，行天不曰詔，通一國曰勅”<8—1—文體—43>

이상으로 <文>에 對해서 言及을 했다고 보며, 여기부터는 詩論에 對해 論及해 볼까 한다. 먼저 芝峯은 <文章部 二詩條>에서, <詩>란 <名>의 由來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大戴禮에 이르기를 黃帝樂을 雲門이라 하고 樂章을 詩라고 했으며，虞書에는 詩란 “志를 말하는 것”이요，歌란 말을 길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詩의 이름이 이로부터 비롯한다.”

“大戴禮云，黃帝樂曰雲門，樂章曰詩，虞書云，詩言志，歌永言，詩之名始此”<9—2—詩—1>

다음으로 芝峯은 「詩法源流」의 말을 引用하여 肯定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아래와 같다.

“詩法源流曰，詩者原於德性，發於才情，心聲不同，有如其面，故法度可學，而神意不可學，此言是”<9—2—詩—6>

곧 詩는 人間의 <德性>에 바탕하여, <才情>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心聲>이 같지 않음이 사람의 얼굴모습이 저마다 各樣 各色인 것 같아서 詩의 <法度>는 배워 알 수 있으나, 詩 속에서 풍기는 <神意>는 배워서 될 수가 없다고 하여, 詩人마다의 獨特한 個性을 認定하고 있다 하겠으며, 또 <意>를 主張하는 古人の 說을 遠用하여 <爲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古人曰，詩以意爲主，又須篇中鍊句，句中鍊字，乃得工耳，余謂此千鍊成句，百鍊成字者也，故曰，吟成五字句，用破一生心，又曰，吟安一箇字，撲斷幾莖鬚，爲詩之難如此”<8—2—詩—11>

아울러 宋 嚴滄浪의 理論을 빌어 자기의 詩論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앞의 <法度·神意>의 理論을 뒷바침하듯 <學力·妙悟>의 관계를 論하고 있으니, 곧 詩道에 禪道의妙悟를 導入했다 하겠고 이妙悟에도 淺深이 있어 <分限之悟>, <透徹之悟>, <一知半解之悟>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 <學力>도 진실로 터득하기 어렵지만, <妙悟>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고 있다. 즉

“嚴羽曰，禪道惟在妙悟，詩道亦在妙悟，惟悟乃爲本色，然悟有淺深，有分限之悟有透徹之悟，有但得一知半解之悟，漢魏尚矣，謝靈運至盛唐諸公，透徹之悟也，他雖有悟者，皆非第一義也，又詩評曰，孟襄陽學力下韓退之遠甚，而其詩獨出其上者，一味妙悟而已，以此觀之，學力固難，而妙悟尤難。”<9—2—詩—7>

또 芝峯은 詩란 性情에서의 興趣를 重視한 滄浪의 말을 인용한다. 곧 이렇게 쓰여진 詩는 혼적을 찾을 길 없으며 흄을 잡을 수 없음을 空中의 소리와 相中의 色과 水中의 달과 鏡中의 象과 같다라고 했는데 멋진 形容이라고 評한다.

“嚴羽曰，盛唐諸公，惟在興趣無迹可求，如空中之音，相中之色，水中之月，鏡中之象，可謂善形容矣”<9—2—詩—14>

大抵 詩道가 神化의 域에 들어가면 이는 곧 頤悟의 境地니까 말로써 서로 깨우치기는 어렵고 반드시, 스스로 그의妙理를悟得한 뒤에야 서로 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評詩古人盡之，殆無餘語，若悉取諸家詩語，深潛玩索，則當有所得，至於神而化之域，則須是頤悟，大抵詩道，難以言語相喻，必自知然後，可也。”<9—2—詩—25>

아울러 그例를 實際로 든 것이 있으니 여기 실어 보면, 我朝의 李容齋, 鄭湖陰,兩大詩人의 詩를 남들이 評할 때 湖陰에게는 蘇黃의 派가 난다고 하는데 容齋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湖陰이 容齋에게 물기를 나의 詩에 蘇黃의 派가 난다 하고, 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왜 그러냐고 했을 때 容齋 答하기를 君은 其文字를 使用하므로 사람이 쉬 알고 나는 그 意格을 取하기에 남들이 모른다고 하니 湖陰이 그 말에 탄복을 했다는 것이다,

“李容齋·鄭湖陰詩，大抵學蘇黃者也，湖陰問曰，人皆謂余學蘇黃而不謂公學蘇黃何也，容齋答曰，君用其文字，故人見而易知，我取其意格，故人不知之，湖陰服其言。”
 <9-2-詩-29>

결과적으로 芝峯은 主理詩를 썼던 宋人의 詩를 종개 보지 않고 <性情을
吟詠>한 唐詩를 높이 본다. 따라서 宋人은 <主理>로써 <理語>를 지어
教人하므로 사람들이 다시는 詩가 뭘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개탄한다.

“王沂曰，詩至唐古調亡矣，然有唐調猶足被管絃，宋人主理不主調，于是唐調亦亡。黃陳詩法杜甫號大家，其調不見本色流動，如入神廟坐土木骸即冠服喪人等，謂之人可乎，又曰，宋人主理作理語教人，人不復知詩矣，此言似當深省”<9-2-詩-8>

위의 王沂의 말로 볼 때 唐에서 벌써 三百篇의 古調가 亡했는데, 宋人은 <主理不主調>하여 더욱 허수아비 같아졌다고 하여 깊이 省察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詩의 優劣論에 對해 살펴 보기로 한다. 詩란 본디 <觸物寓興,
吟詠性情>인데 <組織雕鏤>하기 때문에 詩의 <言語>는 비록 <工>하지
만 맛이 없어진다고 했으며, 직접 詩의 <上·下>를 論하는 基準을 <含蓄
天成爲上>, <雕鎔極險爲下>로 規定하고 있으니 그 原文을 각각 引用해
보면,

“葉夢得曰，詩本觸物寓興吟詠性情，而世多沒於組織雕鏤，故言語雖工，淡然無味，與人竟了不相關，此言是”<9-2-詩-9>

“詩以含蓄天成爲上，雕鎔極險爲下，如李義山佳矣，而斧鑿太甚，所謂七日而混沌死也，李長吉奇矣，而眩幻太甚，所謂施諸庭廟則駭矣”<9-2-詩-12>

와 같다고 하겠다. 다음 詩法에 對한 解釋를 살펴본다. 먼저 嚴滄浪의 <初
學者之法>에 관한 것을 들면, 詩를 배우는 사람은 <識>을 <主>로 삼아

서 <入門>을 모름지기 바르게 하고 <立志>를 모로매 高尚하게 해야 하나니, 漢魏晋盛唐으로 스승을 삼아야지 開元·天寶 以下의 人物들을 본떠서 지어서는 안된다 하고 또 行함에 이르지 못하면 더욱 <工力>을 들여야 되는 것이다. 먼길을 떠나는 첫발걸음에 차질이 한번 생기면 달려도 달려도 더욱 요원하다고 했으니,

“嚴滄浪曰，學詩者以議爲主，入門須正，立志須高，以漢魏晋盛唐爲師，不作開元天寶以下人物，又曰，行有未至，可加工力，路頭一差，愈驚愈遠，此可謂初學者之心法也”<9—2—詩—32>

비록 宋人의 理論을 빌었고 中間에 中國의 詩와 詩人에 관한 것이 있으나 오늘날 詩를 배우는 사람은 座右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는다. 또 當時 賢和詩의 始作은 唐元·白에서 비롯하여 趙宋에서 盛했다. 我國은 華國을 尊重하는 관계로 이 方法을 다투어 쓰는데 이것은 舉子들이 科業을 익히기 위한 詩法과 같으니 어찌 詩라고 하겠는가? 하여 次韻·用韻·依韻을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溫公詩話曰，唐人賛和，有次韻·用韻·依韻，次韻是幼其次第韻，用韻用彼之韻，不必次之，依韻同在一韻中爾，按次韻之作，始於元·白，而盛於趙宋，我國則尤以華國爲重，故爭尚此法，如舉子習科業者之爲，豈曰詩哉”<9—2—詩法—39>

위의 賛和詩를 좋아하지 않음은 詩에 密度와 緊張度가 회박해지기 때문이다. 詩는 精言이기에 精巧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叠字는 허용이 되지만 <意疊>한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한다.

“詩用疊字，古人不以爲嫌，最忌意疊，如蘇子瞻律絕中，疊使數字者多矣，至於杜韓兩詩疊押韻字，此則不爲病，惟觀作句工拙如何，然語其精，則恐亦不免小疵矣”<9—2—詩法—59>

위의 論法대로 芝峯은 <集句詩>, <百家衣體>도 精하지 못하다는 理由로 배격한다.

前朝의 林惟正이 <百家衣體>를 많이 본였으나⁶⁾ 法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했다.

“集句詩者，摘古人詩句，而湊成者也，自王荊公始倡之，有曰，……甚可喜，黃山谷謂之百家衣體，其法實拙速，而不實巧遲，文天祥又前朝林惟正，多效此體然不足法也”<9—2—詩法—61>

6) 東文選卷之一百三，跋：南秀文의 百家衣跋 參照。

이상으로 詩文論을 마치고, 이어 詩文評에 관해 별전 할까 한다. 勿論, 이論이나 評이 芝峯類說 凡例에서는 <舛駁을 免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소간 애매한 점이 있긴 해도 大體로 분류가 잘 됐다고 본다. 하기야 詩文 아울러서 <評>部分이 十中 八九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앞에서 論及된 대로다.

IV. 詩 文 評

類說의 分類順序에 따라 文에 對한 評부터 살피기로 하고, 먼저 評觀과 態度·評의 基準, 거기에 使用되는 評語들을 살피고, 또 特徵이 있으면 가려 볼까 한다. 明人의 文評을 批判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芝峯은 文章보다 道學을 더욱 貴하게 여기는 立場이라, 우리나라의 文章評에 있어서, 저 高麗朝, 眉叟 李仁老의 <半佛·半儒>⁷⁾, 白雲居士의 <大道의 文學>⁸⁾과, 東山叟의 <文以踏道>로 표상되는 <儒道의 文學>⁹⁾을 거쳐 李朝初의 <性理의 文學>¹⁰⁾을 거쳐, 退溪의 中正의 文學¹¹⁾, 및 栗谷의 徹底한 <道文一致의 文學>¹²⁾을 거쳐 내려옴에 하나의 맥락을 이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明人們은 西漢과 宋以前의 文을 각각 評하고 있으니,

“明人이 말하길 西京 以前諸者の 文은 文彩는 대단하나 道를 실지 못했다. 그리고 宋以後의 文은 道에 대한 내용은 남음이 있으나 文彩는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말하기를 西京 以前의 文은 文彩가 남는 것이 아니고 質朴함이 남아 들며, 宋 以後의 文은 文彩가 不足함이 아니라 質朴함이 不足하다고 본다. 또한 <道란 字>는 <理라는 字>로 표현함이 더욱 온당하다 하겠다.”

“明人有言, 西京以前諸子之文, 文有餘而道不足, 宋以後之文, 道有餘而文不足, 餘謂西京以前之文, 非文有餘質有餘也, 宋以後之文, 非文不足質不足也, 且道字不如理字之尤襯着也”<8—1—文—10>

明人の <道·文>에 基準을 문 評을 芝峯은 <文·質>로 바꾸어 놓았고 특히 <道>字를 <理>字로 바꾸어야 더욱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에서 볼 때 <道學尤貴>의 관점은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고 宋朝의 文이 <理勝其

7) 拙稿: 李仁元 評論研究: 穩論。

8) 拙稿: 白雲文學 研究 語文學 32輯。

9) 拙稿: 崔滋 評論研究, 高麗時代의 言과 語文學。

10) 拙稿: 傭齊 評論研究, 叉村華早記念論文集。

11) 徐首生博士 退溪文學의 研究:

12) 拙稿: 退栗文學觀에 對하여: 語文學 第十回 全國發表大會(淸州) 發表。

辭，質而無文>이란 말에 더욱 充實한 評이 되며，자기가 最高의 理念으로 선정한 道學을 합부로 文評에 使用하지 않겠다는 意圖가 言外에 스며 있음을 쉬 看破할 수 있겠다. 또 다른 評의 基準을 들어보면，저 中國 明後七子의 領首인 王世貞의 評에 전적으로 同意하면서 부연해서 評을 하고 있으니 이는 芝峯이 古文을 좋아한다는 점에서도 상통하며，芝峯類說 文章部 到處에 王世貞이 引用되는 것으로도 充分히 이해가 가는 것이다.

“王世貞이 말하기를 檀弓의 考工記와 孟子·司馬遷은 文에 있어서는 聖人이요，班氏는 文에 있어 賢人이요，莊·列·楞嚴은 文에 있어 鬼神이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다. 내 더 보태기를 周易과 春秋는 文의 聖이요，左氏는 文의 賢이요，老子는 文의 鬼神이라고”

“王世貞曰，檀弓考工記·孟子·司馬遷，聖於文者，班氏賢於文者，莊·列·楞嚴鬼神於文者，此言是矣，餘欲加之曰，易與春秋，聖於文者，左氏賢於文者，老子鬼神於文者”<8-1-文-2>

또 다른 評語로서 <古健，高古>를 尺度로 使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王弇州曰，諸文外山海經穆天子傳，亦自古健有法，餘謂素問文字，亦高古，雖非歧伯本經，必是先秦人所為，而古人無稱道之者何耶”<8-1-文-3>

고 하여 先秦의 古文에 對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南華經과 佛書에 對해서 評을 加하고 있으니 前者는 <天地間一種議論，一體種制>로서 <龍·幻·鬼神>의 <奇·變·玄·妙>를 다했다고 극찬을 하고 後者는 文字가 雖正하지 못하니 이는 <譯解의 所致>라고 斷定한다.

“南華之於文，乃天地間一種議論一種體制，變化如龍，奇怪如幻，不測如鬼神，可謂奇之奇，變之變，玄之玄，妙之妙，古今文章未有能出其機軸之外者，惟佛之於言語亦然，但其文學不雅，是則譯解之所致也”<8-1-文-4>

이 밖에도 ‘古文’，‘辭賦’，‘東文’‘文藝’로 項目을 나누어서 評을 하고 있으며 특히 ‘東文’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文人們의 글을 評한 점을 높이 사야 하겠다. 文에 對해서는 이만 그치고 詩評에 對해 言及할까 한다. 여기 詩評에서도 文評에서와 같이 간단한 評語，그러나 歷史的，評論史的 意味를內包한 評語를 使用하여 芝峯의 評의 態度나 基準을 明快하게 提示하고 있다.

“詩三百篇은 옛스러우며(古)，漢·魏는 옛스러움에 가까우며 質朴하고 二晉은 質朴이 變하여 文飾에 치우쳤고，梁陳은 文飾도 變해서 華靡하여 시들고，唐에 이르

려彬彬하나 宋에 이른 즉 또 한번 變하여 衰退해져 버렸다.”

“詩三百篇古矣, 漢魏近古而質矣, 二晉質變而文矣, 梁陳文變而靡矣, 至于唐則彬彬矣, 宋則又變而衰矣”<9-2-詩評-66>

위에서 <古>, <近古而質>, <質變而文>, <文變而靡>, <彬彬>, <衰> 等의 評語들이 登場하는데, 이것은 筆者가 지금까지 보아온 評語보다도 간결, 명쾌한 評語의 提示라고 보아지며 또한 그 評論의 史的인 推移가 눈에 보는듯 선하게 떠 오른다. 그리고 이 變遷史를 評語를 通해 通視의 으로 配列해 보면, 더욱 명료해 지리라 믿는다.

<古→質→文→靡→彬→衰>

의 過程을 거침을 알 수 있겠고, 또 이에서 芝峯의 古文 崇尚의一面도 보여주는 듯하여 흥미를 더해 주며 또한 文風의 衰微함을 안쓰러워하는 這問의 消息도 傳해 주고, 또 古文復古에의 執念도 엿볼 수 있다. 앞의 文評에서 明人의 <文·道>評을 芝峯이 <道> 대신에 <質>을 代入시킨 意圖라는가 芝峯이 생각하는 最高의 理念으로서의 價值觀인 <道>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道> 代身에 <理>字가 더 알맞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은 바로 明人이 <古>에 對한 言及이 없었기에 <文·質>로 치환을 시킨 것이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 이 <古>字를 어떻게 해석하여 그 개념을 과악하면 될까 하는 것이 상당한 難題에 속한다. 筆者の 얇은 常識으로 볼 때 <尚古>, <古拙>, <古典>, <擬古>, <太古>, <復古>……等의 用語에서 볼 때, 그리고 變遷過程이 <古→衰>임을 상기할 경우, 여기 이 <古>는 芝峯의 最高의 指向點이요, 最大의 所望이요, 가장 값진 그 무엇이라고 풀이하여 무방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더우기 芝峯이 六經을 읽는 여가에 다른 册을 봤다고 했으니 詩三百篇을 최고의 값진 <古典>으로 생각하고 世衰道微하여 詩가 衰亡해지고 있는 事實을 指摘하여 三百篇의 <思無邪>로 歸正시키려는 의도를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天生>과 <人爲>에 根據하여 評을 한例가 있다.

곧 謝康樂의 <池堂生青草, 園林變鳴禽>의 詩句를 細味해 보면 <人爲>가 아니고 <天生>의 境地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詩話曰, 得之天生者無痕, 得之人爲者有迹, 餘謂如謝康樂……一句, 細味之, 則知此言矣”<9-2-詩評-67>

이는 바로 大手의 거침없는 作品을 두고 天衣無縫한 境地를 말한다고 하

겠다. 또는 <意興>과 <用事>를 주로하는 詩를 評하고 芝峯 當時 지나친 用事爲主의 詩作風을 匡救하려고 하며, 用事詩에 준열한 評을 加하고 있음도 주목이 된다. 더욱 唐人은 意興을 專主하고 宋人은 用事を 專尙하여 甚至於 蘇黃과 같은 大家들도 佛語를 많이 使用하니 詩格에 비춰 볼 때 어쩔지 모르겠다 하고, 用事는 古人の 詩句를 窃竊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唐人作詩，專主意興，故用事不多，宋人作詩，專尙用事，而意興則少，至於蘇黃又多用佛語，務爲新奇，未知於詩格如何，近世此弊益甚，一篇之中用事過半，與剽竊古人句語者，相去無幾矣”<9—2—詩—19>

우리나라 詩人們의 二百年間 蘇黃을 숭상하여 一套를 벗어나지 못함을 개탄하고 近世에 唐詩를 배우진 하나 晚唐을 배워서 清苦한 詩가 되니 盛唐을 어찌 따라 가겠는가? 고 한다.

“我東詩人多尙蘇黃，二百年間皆習一套，至近世崔慶昌·白光勳如學唐，務爲清苦之詞，號爲崔·白，一時頗効之，殆變向來之習，然其所尙者晚唐耳，不能進於盛唐豈才有所局耶”<9—2—詩—30>

위의 論評으로 볼 때 才調야 局限되었겠는가마는 <立志須高>가 되지 못한 까닭이라는 暗示를 인식하게 한다.

이어 芝峯은, 崔慶昌, 李達의 詩가 가장 唐에 가까우나 唐人の 文學 或은 全句를 截取하여 <天機가 自運하는 造化의 功>이 없는듯 하나 만약 <奪胎換骨>로 말한다면 두렵전데 아니라고 하겠다. 라고 하니 <奪胎換骨>은 黃·蘇의 詩作의 경향에 얹매인다고 한다.

“崔慶昌·李達一時能詩者也，其詩最近唐，而但作句多襲唐人文字，而截取全句而用之，令人讀之，有若讀唐人詩者，故驟以爲唐，而喜之，然其得於天機自運，造化之功似少，若謂奪胎換骨，則恐未也”<9—2—詩評—201>

그러나 具眼者가 본다면 어찌 <盛唐地域>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없겠는가고 하여 隱然中 自負하고 있음도 흥미롭다면 흥미꺼리라 하겠다

“李朝詩人，不脫宋元習者無幾，如李胄·俞好仁·申從濩，申光漢號近唐，而似無深造之功，朴淳·崔慶昌·白光勳·李純仁·李達皆學唐，其所爲詩有可稱誦者，但止於絕句或五言排律，而七言律以上則不能佳，又不能進於盛唐，是其才學淵源本小而然不知者以爲學唐之咎，可笑，今世亦豈無一二用力於斯，優而人始盛唐之城乎，具眼者能下之”<9—2—詩評—202>

앞에서 論及한 <古→衰>의 評을 우리나라의 作品에 적용한 例 하나를 보기로 하면 長篇詩는 가장 <近古>의 경지를 들어가지 못했고 文도 또한 그런 정도라고 하여 <古>의 경지는 그만 두고라도 <近古>도 안된다고 評한다.

그리고 前朝의 詩·文을 評함에 李奎報를 가장 높이 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다양한 二字式 評語가 使用된다.

“前朝人詩，若李奎報之雄瞻，鄭知常·陳津之婉麗，李仁老·李齊賢之精緻，李穡之冲粹鄭夢周之豪邁，李崇仁之醞釀，可謂秀出者，而李奎報最大手李齊賢爲匹唐，李穡於詩文具善，而李奎報之文亦自豪健。”<9-2-詩評-198>

이로써 芝峯은 <雄瞻·豪健>한 作品을 좋아한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다음은 <氣象>을 評에 使用한 例 하나를 끝으로 다음 章으로 넘어 갈까 한다.

漢高祖의 大風歌와 武帝의 秋風辭를 比較하여 <語同而所思不同>이라 評하고 이어 大風歌의 <不忘危之意>에 秋風辭의 <貪生歎老之意>가 있어 <氣象>의 如何를 불만하다고 한다.

“漢高大風歌曰，大風起兮雲飛揚，武帝秋風辭則曰，秋風起兮白雲飛，大風歌曰，安得猛士兮字四方，秋風辭則曰，懷佳人兮不能忘，其語同而所思不同，又大風之終，有安不忘危之意，而秋風之末曰，少壯幾時兮奈老何，有貪生歎老之意，可見高·武氣象之如何矣”<10-3-御製詩-1>

V. 歌詞評

여기 芝峯이 <歌詞評>을 따로 獨立시켜 주었음은 옛날 大部分 漢字文學作品에만 論評하던 때에 놓암·퇴계를 잇는 훌륭한 評論이라 하겠기다 물론 여기 歌詞란 樂府에 실리는것을 두고 한 말이니 먼저 宋純의 玉堂官을 代身하여 지은 歌詞를 上이 매우 칭찬했는데 지금 樂府에 전한다고 말한다.

“明廟朝折御苑黃菊賜玉堂官，命撰進歌詞，玉堂官倉卒不能就，時宋純以宰樞直摠府，乃借製以進，上覽之驚喜問誰作此者，玉堂官不敢隱以實對，乃大加賞賜，其詞至今傳于樂府”<14-7-歌詞-56>

또 我國歌詞는 方言으로 쓰여서 中朝의 樂府와 같지 않다고 하여 近世 宋純鄭澈의 所作이 最善이나 口頭에 謄炙될 뿐이니 愛惜한 일이고 長歌도 세상

에 盛行한다고 하고 芝峯 自身도 <朝天前後二曲>이 있는데 또한 戲調의 것이라 했으니

“我國歌詞難以方言，故不能與中朝菴府比並，如近世宋純·鄭澈所作最善，而不過膾炙口頭而止，惜哉。長歌則感君恩·翰林別曲·漁父詞最久，而近世退溪歌·南寃歌·宋純俛仰亭歌·白光弘關西別曲·鄭澈關東別曲·思美人曲·續思美人曲，將進酒歌，盛行於世，他如水月亭歌·歷代歌·關山別曲·古別離曲·南征歌之類甚多，余亦有朝天前後二曲，亦戲耳”<14—7—歌詞—58>

다 알려진 事實이라 생각되지만 <雇工歌>라는 것이 俗傳에 先王御製라고 하나 許進士塊의 作이라고 고증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俗傳雇工歌爲 先王御製，盛行於世，李完平元翼又作雇工答主人歌，然余聞非御，製乃許塊所作，而時俗誤傳云，許塊以進士登武科者也”<14—7—歌詞—59>

또 比較文學의 印象을 풍기는 대목이 있으니 李駢城이 接伴使로 있을때 우리 노래를 天將에게 漢譯해 보인 事實을 들어 康伯可의 閨情詞와 李義山의 詩와 對比한 것이 그것이다. 이 얘기는 西浦漫筆에도 나온다.¹³⁾

“李駢城爲天將接伴使，天將聞我國人唱歌，問其旨意，駢城書示曰，「昔日苟如此，此身安可持，愁心化爲絲，曲曲還成結，欲解復欲解，不知端在處」，天將稱好，按康伯可閨情詞曰，「此度相思，寸腸千縷，蓋思與絲字同音故也，李義山詩，春蠶到死絲方盡，亦此義」<14—7—歌詞—57>

評에 對한 것을 끝내고 여기서는 芝峯이 當時 文風의 痘弊를 친단한 것에서 科舉文의 그것과 散文을 疏忽히 생각하는 두어 가지만을 言及할까 한다.

VI. 文風의 痘弊

먼저 科舉文의 그것부터 살피면, 우리나라 과거문은 四六은 冗長하여 行文과 恰似하고 行文은 公事場 文字와 같아 文章家の 體樣과 全혀 달라서 及第한 사람도 글을 알지 못하니 무엇으로 經世致用을 하겠는가? 고 하고 機軸을 大變시키고서야 文風의 振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며, 또 과문중 <四書疑體式>란 것도 胡元寺의 浙江鄉試의 作品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하고 我國科文의 폐단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단언하기 까지

13) 拙稿：西浦評論 研究。

이른 것이다.

“我國科學之文，其弊甚矣，四六冗長全似行文，所謂行文又似公事場文字，詩賦有入題・鋪叙・回題等式，尤與文章家體樣全別，故雖得決科，遂爲不文之人，何以致用於世乎，必大變機軸而後可矣”<8-1-文-48>

“我國科文中，四書疑體式極是無謂，嘗見中朝書籍中，有四書疑一篇，乃胡元時浙江鄉試之作也。與今科場所製文字如一，我國科文之弊，蓋源於此”<8-1-文-49>

우리나라 사람들이 詩를 배우는 사람은 많으나，散文에 있어서는 전혀着力하지 않기 때문에 볼 만한게 없다 하고，容齋·湖陰도 文에는 <工>하지 못하며 佔畢齋를 東方의 巨擘이라고 하나 俗文字를 많이 사용해서 볼게 없다고 한다.

“我國之人，用功於詩學者衆矣，至於散文則全不着力，故鮮有可觀，如容齋·湖陰亦不能工於文，佔畢齋號爲東方之巨擘，而多用俗下文字，其他何說焉，以濯纓之雄於文，而短於詩詞，所謂詩有別才者信矣，柳西炯平生自力於翰墨，而爲千古最盛，駭殊不似作者，蓋散文非其所長爾”<8-1-文評-77>

VII. 結

敘上한 張皇했던 內容들을 要約 整理하여 結言으로 삼을까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芝峯類說 全體에서 文章部가 차지하는 比重은 大端한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수많은 中國 文人們이 理論을 紹介 援用한 功勞는 우리 評論史上에 不朽의 位置를 點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東文>과 <東詩>를 따로 設定한 것은 더욱 意圖的이며 우리 한글로 기록된 순수한 국문학 作品에 對한 관심이 보통이 아님을 보겠으며, 또 空稿引이 彼土의 書籍에만 傳함을 애석한 일이라 안타까워 하고 있다.

詩文論으로서는 文章보다 道學을 優位에 두고 文은 <以神爲主>라 하며 氣論에도 共鳴하여 古文復古에 차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力量의 古·下에 따라 優劣이 定해진다 했고, 또한 創始는 어렵고 모방은 더 쉽다는, 平凡하면서도 時俗을 찌르는 論法과 글은 自然스레 이루어져야지 强作하면 <氣骨>을 다친다고도 했고, 마음에서 自由自在로 쓰여져야지 손끝에서 나온 글은 어색하다 하고 文章도 天地造化의 妙와 같다고 하였으며, 詩論에서는 詩는 곧 德性과 才情, <性情>에서 울어 나오는 것이라서, 그 속의 神意는 배우기 힘드나니, 이 神意란 妙悟·頓悟와 通하고 또 意格과도 通한다 하겠고, 唐·宋詩를 놓고 따질 때 唐詩는 性情을 노래했기에 더 훌륭하고

宋詩는 <主理>했기에, 또는 用事が 심하기에 格이 自然 낫다고 하여 唐詩의 보급을 力說한다. 詩의 우열도 文과 같이 天成이 上이요 雕鏤在險한 것은 下格이라 하고 學詩者는 議을 爲主하고, 入門이 모름지기 빌라야 하며 立志는 高古해야 한다고 한다. 自然스런 文學作品을 좋아하기에 集句詩나 百家衣詩는 排擊하는 立場이며, 評論의 태도는 古文에로의 復歸를 主張하며 <高古>와 <古健>한 詩文을 高價로 친다. 明人의 <文·道>評을 批判하여 <文質>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宋詩를 評할 때는 <道>字보단 <理>字가 더욱 밀착된 評語라고 강조한다.

해서 中國 歷代詩를 評하는 基準을 <古→質→文→靡→彬→義>의 評語로 歷史的 考察을 行한다. 또 文章을 評할 땐 <聖>, <賢>, <鬼神>等의 評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詩의 尺度를 <天生>과 <人爲>, <意興>과 <用事>, <天機造化>, <奪胎換骨>, <氣象> 等의 것으로 評價한다. 그렇게 볼 때 最高의 境地인 <古>의 지점에는 우리 當時의 詩文이 어림도 없고 <近古>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여 六經時代의 文學으로 挽回시키려는 초조함이 엿보이며, 우리 가사와 別曲體, 時調 等에 관한 關心을 짙게 풍겨 주고 내것을 아끼는 마음씨가 두드러진다. 또 芝峯 當時 文風의 痘弊를 科舉文에서 찾고 이런 폐단 때문에 致用이 도무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아울러 散文을 소홀히 취급하는 당시의 풍조를 경철히 批判한다.

x

x

x

너무나 방대한 分量을 짧은 글속에 짜 넣으려니 力量의 不足이 절감된다. 앞으로의 분발을 기대하며, 후일 芝峯評論에 對해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기회 있기를 가만히 바라 본다. 훌륭한 先祖의 업적을 더럽힌 것 같아 자꾸만 면구함이 앞선다.